

연구 자료

한·칠레 FTA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임 정 빈*

Key words: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시장개방(Market Liberalization),
농산물 무역(Agricultural Trade), 칠레(Chile), 관세철폐(Tariff Elimination)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trends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le after the effectuation of bilateral FTA, and seeks to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future FTA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The valu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le is increased after the launch of FTA. As our expectation, the export of Korean manufactured goods such as automobiles, wireless phone, TV and video camera has sharply been increased through the effects of tariff elimination whereas the import of Chilean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wine, pork, kiwi, and fruit preparation has been increased. However the import of Chilean fresh fruit such as grape and peach has not been greatly increased rather than prior expectation. It is mainly because of seasonal tariff measure for grape and plant quarantine for peach and other fruits. Particularly the negative impacts on the Korean fruit industry of FTA with Chile will be shown in the mid-term (3~10years) according to the effects of extinguishing quarantine measure. Therefore this paper overviews the process of mid-term effects of Korea-Chiles FTA on agricultural sector and presents the Korean FTA strategies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n agricultural sector.

1. 서론
2.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 변화 동향
3. 농업에 미친 단기적 영향 및 시사점
4. 향후 FTA 추진 전략과 방향

*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오늘날 세계 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와 함께 최근 세계 경제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FTA로 일컬어지는 지역주의의 확산 및 심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04년 5월 현재 208개의 FTA 협정이 체결되어 190 여건이 발효 중이며,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70여 개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¹ 이렇게 국가 혹은 지역 간에 활발히 FTA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협정 체결국간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와 경제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경제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WTO 사무국에 의하면 현재 세계 교역액의 4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FTA 체결국 간 역내 무역비중이 2005년에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FTA로 대표되는 지역경제통합은 어느새 WTO 체제에 의한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통상질서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주요 무역국들의 급속한 FTA 체결 움직임과 1997년 말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 상황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다자주의 중심적인 통상정책에서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한 양자적 무역확대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변화해야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대내적인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1998년 11월 5일 개최된 국무총리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하며, 해외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첫 번째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함으로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움직임을 태동시켰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 협정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것은 우선 양국 간 산업구조의 보완성(한국: 공산품 수출, 칠레: 구리, 원목, 농산물 등 1차산품 수출), 농업 피해 최소화(계절적 차이 및 거리상의 문제 고려), 20여 개 국과 FTA 체결하고 있는 칠레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이 밖에도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를 선택함으로써 최초로 시도하는 FTA 협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FTA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한 것도 칠레를 선택한 의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1999년 9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4년여에 걸친 양국 간 협상 끝에 2004년 4월 1일부터 협정이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협정추진 과정에

¹ 엄밀히 말해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하나의 유형이다. WTO가 2004년 5월 공표한 RTA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체결된 208개 RTA는 자유무역협정(FTA) 141개, 관세동맹(CU) 14개, 권능조항에 따른 무역특혜 19개, 서비스 관련 자유무역협정 34개로 구성된다.

서 칠레는 농업 강국으로 양국 간 FTA 체결 후 우리 농업 분야에 큰 피해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 의견이 강력히 대두됨으로써 양국 간 FTA를 체결하기까지는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지난 4월 1일 발효된 지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FTA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동향, 주요 농산물 수출입 동향, 국내 농업에 미친 단기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 후, 향후 일본, 싱가포르, ASEAN, E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국, 멕시코, 미국, 호주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FTA 추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변화 동향

2.1. 한·칠레 전체 교역 변화 동향

2004년 4월 1일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지난 5개월(4월~8월)간 우리의 대칠레 수출은 2억 8700만 달러, 수입은 8억 300만

달러로 5억 16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대칠레 수출이 5억 1700만 달러, 수입이 10억 5800만 달러로 5억 41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시현한 것과 비교하면 FTA 체결 후 지난 5개월간 발생한 무역적자 규모는 거의 작년도 전체 무역적자규모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 지난 5개월간(2004년 4월~8월) 양국 간 교역은 작년 같은 기간(2003년 4월~8월)과 비교하여 73%가량 늘어났으며, 이 중 우리의 대칠레 수출은 38%가량 증가한 반면에 수입은 9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율에 비해 수입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요인은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원자재(동피와 동광 등 비철금속제품)의 수입가격 급등에 있다. 예를 들어 FTA 발효 이후인 지난 5개월간 전체 칠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가량인 동피와 동광의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와 24% 상승한 반면에 수입 단가는 각각 72%와 60% 상승함으로써 큰 무역적자를 발생시킨 것이다. 즉 전체 칠레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예상 보다 높았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

표 1. 최근 한-칠레 양국 간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03년	'03. 1~8월			'04. 1~8월			증 감 율		
		1~3월	4~8월	계	1~3월	4~8월	계	1~3월	4~8월	계
수 출	517	130	208	338	135	287	422	3.8	38.0	24.9
수 입	1,058	244	421	665	463	803	1,266	89.8	90.7	90.4
무역수지	△541	△114	△213	△327	△328	△516	△844	-	-	-

자료: 외교통상부, 농림부.

적으로 큰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수출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전화, 캠코더, 칼라TV 등의 대칠레 수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 203%, 111%, 99% 증가하였다. 양국 간 FTA 체결로 관세철폐 혜택을 받은 이들 분야 수출액은 이미 작년 전체 수출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FTA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된 세탁기(8%) 및 냉장고(-22%)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수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지난 5개월간 우리가 기존에 수입해 오던 동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제품, 펄프와 목재류 등의 대칠레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의 대칠레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9%, 65%, 54% 증가하였다. 포도주는 5년 내 관세철폐, 키위와 돼지고기는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올해 품목별로 2.1% ~ 4.1%의 관세 감축 효과가 있다. 이들 품목의 수입 증가는 이러한 관세 감축효과와 함께 포도주의 경우는 웰빙 현상에 따른 포도주 소비 증가 및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식 제고, 돼지고기의 경우는 광우병 파동이후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돼지고기 수요 증가 추세, 키위의

표 2. 대칠레 주요 수출 품목의 현황

단위: 천불, %

수출품목	2003년	FTA 발효 후		
	교역액	'03.4-8월	'04.4-8월	증감률(%)
자동차	162,362	65,146	95,509	47
휴대폰	23,140	9,767	29,592	203
세탁기	24,219	7,777	8,428	8
냉장고	5,129	2,662	2,085	△22
캠코더	3,646	1,680	3,546	111
칼라TV	7,249	4,224	8,415	99

자료: 외교통상부, 농림부.

표 3. 대칠레 주요 수입 품목의 현황

단위: 천 달러, %

수입품목	2003년	FTA 발효 후		
	교역액	'03.4-8월	'04.4-8월	증감률(%)
동 피	513,101	187,823	417,668	122
동 광	219,113	95,180	188,674	98
포 도	13,656	9,203	8,666	△6
포도주	2,990	1,003	3,404	239
키 위	1,758	1,490	2,458	65
돼지고기	30,237	13,088	20,162	54
홍 어	9,962	4,058	3,042	△25

자료: 외교통상부, 농림부.

경우는 가장 큰 관세 관세 감축효과(4.1%)와 수입처 전환효과로 인한 국내 수입수요 증가에 따라 대칠레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칠레 최대 수입 농산물인 포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지난 5개월간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도의 경우 11월~4월 중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관세를 10년간 철폐하되 그 밖의 시기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관세(45%)를 부과하는 계절관세 적용품목으로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지난 5개월(4월~8월)간 관세절감혜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작황이 평년 수준으로 가격이 비교적 낮게 유지됨으로써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2. 한·칠레 농산물 교역 동향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림축수산물 전체 교역액은 154억 7000만 달러이며, 이 중 대칠레 교역액은 1억 300만 달러로 전체 농림축수산물 교역액의 1% 이내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칠레 농림축수산물 교역액 중 1%가량이 대칠레 수출이며 나머지 99%는 대칠레 수입 부문으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전적인 수입 구조이다. 2003년도 기준으로 대칠레 농림축수산물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9%, 축산물 2%, 임산물 0%, 수산물은 39%이다.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대칠레 수출에서 농산물과 임산물의 차지비중은 감소한 반면에 수산물의 수출 차지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농산물 대

칠레 수출의 특징은 라면, 위스키, 과자, 사탕 등 국내 농업 생산이나 농가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가공식품의 수출 차지 비중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대칠레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다양한 품목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3년도 기준으로 대칠레 농림축수산물 수입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축산물 30%, 임산물 17%, 수산물은 32%로 분야별로 매우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대칠레 수입에서 임산물의 차지비중은 감소한 반면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수입 차지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한·칠레간 농림축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선 우리나라의 대칠레 농림축산물 수출은 뚜렷이 내세울 품목이 없는 소량 다품종 형태로 금액 측면에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일관성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칠레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최근 과실류 등 농산물,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그 가공품, 포도주 등 과일가공품 등 대량구매 내지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

한편 2004년 8월까지 우리나라와 칠레간 농림축수산물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8개월간 우리의 대칠레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약 77만 달러, 수입은 10,900만 달러로 10,824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 8개월간(2004년 1월~8월) 양국 간 농림축수산물 교역은 작년 같은 기간(2003년 1월~8월)과 비교하여 57%가량 증가하였으며, 이 중 우리의 대칠레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12%가량 감소한 반면

에 수입은 5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개월간 대칠레 농림축수산물 수출 감소추세는 주로 수산물 수출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였다. 수입의 경우 임산물(120%), 축산물(74%), 농산물(22%)의 순으로 작년 같은 기간(2003년 1월~8월)에 비해 모든 분야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임산물의 급격한 수입 증가는 펄프와 원목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이제 임수산물을 제외하고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축산물 수입 동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농축산물의 대칠레 수입액은 약 5400만 달러로서 이미 전년도 전체 농

표 4 한-칠레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동향

단위: 천\$

구 분		1995	2000	2003	2003/8	2004/8	2003 / 2004
수출	농산물	556	800	719	390	661	69.50%
	축산물	-	-	30	-	-	-
	임산물	258	29	1	1	4	214.10%
	수산물	48	39	475	475	99	-79.10%
	총계	863	868	1,226	867	765	-11.70%
수입	농산물	4,422	14,107	21,825	17,781	21,743	22.30%
	축산물	788	110	30,539	18,459	32,137	74.10%
	임산물	207,675	26,778	16,909	10,683	23,530	120.30%
	수산물	16,547	23,710	32,362	22,278	31,593	41.80%
	총계	229,432	64,705	101,625	69,200	109,003	57.50%
무역수지	농산물	-3,866	-13,307	-21,105	-17,390	-21,081	21.20%
	축산물	-788	-110	-30,509	-18,459	-32,137	74.10%
	임산물	-207,417	-26,750	-16,908	-10,681	-23,526	120.30%
	수산물	-16,498	-23,671	-31,887	-21,802	-31,494	44.50%
	총계	-228,569	-63,837	-100,409	-68,333	-108,237	58.40%

주: 1) 2004년은 8월까지의 누적자료임.

2) 2003/8 및 2004/8은 각 연도의 8월까지 누적자료를 나타낸 것이고 이는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내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음.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표 5 주요 농축산물의 대칠레 수입 현황, 1월~8월

단위: 톤, 천불

구 분	2003 (금액)	2003. 1~8		2004. 1~8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 축 산 물	52,354	22,088	36,240	27,800	53,879	25.9	48.7
농 산 물	21,825	12,480	17,781	13,608	21,743	9.0	22.3
○ 포 도	13,674	9,155	13,674	8,351	13,173	△8.8	△3.7
○ 키 위	1,758	1,331	1,490	1,817	2,458	36.5	64.9
○ 포 도 주	2,990	410	1,551	1,465	4,740	257.3	205.6
○ 기 타	3,403	1,584	1,066	1,975	1,372	24.7	28.7
축 산 물	30,539	9,608	18,459	14,192	32,136	47.7	74.1
○ 돼지고기	30,237	9,555	18,333	14,093	31,951	47.5	74.3
○ 기 타	292	53	126	99	185	83.3	47.6

자료: 농림부

축산물의 대칠레 수입액 52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농축산물의 대칠레 수입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수입액 3600만 달러보다 49%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한편 2004년 4월 1일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지난 5개월(4월~8월)간 우리의 대칠레 농축산물 수입은 3천 6백만 달러 수준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하였는데, 그 중 농산물이 25%, 축산물이 54% 가량 증가하였다. 양국 간 FTA 발효이후 지난 5개월간 농산물의 경우 포도주, 키위의 대칠레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9%, 65%로 증가한 반면 포도는 6%가량 감소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포도주의 경우는 관세 감축(2.5%인하) 효과 이외에 포도주 소비 증가 추세와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수입 증가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키위의 경우는 가장 큰 관세감축 효과(4.1 %)로 인한 국내

수입수요 증가와 기존 수입국(뉴질랜드)으로부터의 수입처 전환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포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절관세부과 방식으로 수입이 개방된 상태로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지난 5개월(4~8월)간 관세절감혜택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국내 생산과 가격이 작년 수준으로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요인으로 판단된다. 축산물의 경우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지난 5개월간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관세 감축(2.1%) 효과와 함께 광우병 파동이후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돼지고기 수요 증가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대칠레 수입액 중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금액 기준으로 수입이 크게

표 6 FTA 발효 전후 주요 품목 수입 동향 비교

단위: 톤, 천 달러

	2003				2004				증감률 (%)			
	1~3 (A)		4~8 (B)		1~3 (C)		4~8 (D)		1~3 (C/A)		4~8(D/B)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축산물	6,341	10,613	15,747	25,627	8,915	18,023	18,885	35,856	40.6	69.8	19.9	39.9
농 산 물	3,207	5,345	9,273	12,436	3,272	6,159	10,336	15,584	2.0	15.2	11.5	25.3
○ 포 도	2,533	4,453	6,622	9,221	2,311	4,460	6,040	8,713	△8.8	0.2	△8.8	△5.5
○ 키 위	-	-	1,331	1,490	-	-	1,817	2,458	-	-	36.5	65.0
○ 포도주	213	548	197	1,003	448	1,335	1,017	3,405	110.4	143.5	416.2	239.5
○ 기 타	461	344	1,123	722	513	364	1,462	1,008	11.3	5.8	30.3	39.6
축 산 물	3,134	5,268	6,474	13,191	5,643	11,864	8,549	20,272	80.0	125.2	32.0	53.7
○ 돼지고기	3,122	5,245	6,433	13,088	5,602	11,789	8,491	20,162	79.4	124.7	32.0	54.0
○ 기 타	12	23	41	103	41	75	58	110	241.7	226.1	38.1	7.8

자료: 농림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농축산물 품목군은 동물성유지, 육과 식용 설육, 낙농품,, 채소 및 과실조제품, 육/어류 조제품, 산수목 및 꽃, 음료 및 주류, 면류, 목재류 등이며, 주요 수출 품목군은 종자, 조제사료, 담배, 인삼, 빵 등 곡물 조제품 등이다.

3. 농업에 미친 단기적 영향 및 시사점

우선 지난 4여 년의 우여 곡절 끝에 금년 4월 1일부로 발효된 한-칠레 FTA의 이행 5개월(4-8월)간 양국 간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여 FTA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상대로 즉각적인 관세철폐의 효과로 인해 우리의 대칠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무선전화, 칼라TV, 비디오카메라 등 제조업품 위주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포도주, 돼지고기, 키위, 과실조제품 등 농산물의 수입은 크게 증가 추세이다. 한편 양국 간 FTA 체결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는 수입이 증가하지 않아 당초 우려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품목들은 분석된 기간 포도는 계절관세 부과 방식의 채택과 국내 수급상황에 따른 수입 증가세 둔화, 복숭아의 경우는 식물검역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던 것으로서 판단된다. 특히 무엇보다 현재 국내 과수산업은 관세 부과 조치보다는 식물검역상의 보호 조치에 의

해 보호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과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중장기적으로(3년~10년)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 금지조치의 해제 여부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다. 현재 신선과일 중 식물검역법상 칠레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품목은 포도, 키위, 레몬에 불과하며, 현재 복숭아, 자두, 오렌지, 만다린, 자몽 등의 식물검역상 수입 금지조치 해제를 칠레 측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칠레 FTA 과정에서 칠레가 과수 부문 농업강국임을 감안하여 국내 과수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과와 배는 관세철폐예외, 포도는 단경기에 한해 관세를 10년간 철폐해 나가는 계절관세 도입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측면이 있다. 우선 국내 과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사과, 배)되었거나 DDA 협상 이후 논의대상(감귤류 등)으로 유보된 상태이다. 또한 곡물류는 칠레가 수입국이고, 축산물은 수입처 대체 등으로 피해가 없을 전망이나 칠레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과수 부문의 단계적 관세 감축 혹은 DDA 협상 이후 재협상 결과로 초기 피해보다는 중장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더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적 관세 감축으로 인한 포도,

키위 등 신선과일 수입 증대로 인한 가격 하락 및 과일주스, 혼합주스 등의 수입 증대로 인한 가공용 과일 수요 감소로 인한 해당 산업의 직접적 피해이다.

둘째, 농산물 소비의 대체 특성으로 인해 포도, 키위, 해당 과일 주스 등의 수입 증대는 다른 국내 과일의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을 야기함으로써 과수산업 전체에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셋째, DDA 협상 이후 재협상하기로 합의된 주요 품목들(HS 10단위 기준 383품목, 낙농품, 감귤류 등)에 대한 칠레의 국제 경쟁력과 관세철폐 유형에 따라 피해 규모가 상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칠레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식물 검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의 수입 금지 해제 시기에 따라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변화할 것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포도와 복숭아, 참다래(키위)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과수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과수원 폐원 신청을 받기로 하자 농민들의 신청이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늘어난 6,400ha에 달하였다. 이러한 3개 과수작목의 폐원 신청 대상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장기적으로 과수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수농가의 폐원신청이 급증한 요인으로는 우선 과수경영주의 고령화현상의 심화와 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2003년 기준으로 경영주

가 60세 이상인 과수농가는 전체 과수 농가의 45%로 국내 전체 농업의 평균 고령농가 비중인 39%에 비해 높으며 과수농가 호당 평균 재배면적은 0.7ha에 불과한 영세한 구조이다. 이러한 국내 과수 산업의 고령화·영세화 상황에서 향후 개방화 확대에 의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를 느낀 영세 및 고령농가들은 중심으로 폐원신청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농업생산자들의 농정불신 현상도 과수 농민들이 경쟁적으로 과수원 폐원 신청을 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다른 과일에 비해 경쟁력도 있다고 판단되고, 현재 검역상 수입이 금지된 복숭아에 대한 폐원신청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농업 생산자들의 농정불신과 정부의 정책 및 예상 영향에 대한 홍보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 5개월간 국내 농업에 미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바로 이러한 국내 농업 생산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농업활동에 대한 상실감 증폭으로 인한 농업포기 현상이라 생각한다.

4. 향후 FTA 추진 전략과 방향

우리는 지금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살고 있다. 한·칠레 FTA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칠레라는 먼 나라를 파트너로 시작하더니 지금은 일본과 싱가포르를 상대로 협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까

운 장래에 ASEAN, E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국, 멕시코, 미국, 호주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 체결협상이 멀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우리의 농업 부문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부존자원으로 인해 높은 토지비용 등 농업 생산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로 농업 자원이 풍부하며 강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일반적으로 농업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FTA 추진 방향과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 과정에서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1.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와 유예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천차만별이고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상이하여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왔으며, 지역 간 무역자유화 협정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 차이가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이미 여러 국가들이 비단 농산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나 산업(NAFTA의 문화산업)을 FTA에서 제외하거나 상당 기간 유보한 바 있다. 즉 자국의 이익에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FTA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협정체결국의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철폐 예외,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pecial Safe Guard)² 등의 적절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관세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일정 정도 보호막을 설치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2002년 4월 발효가 합의된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 부문을 제외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농산물 수출대국들도 FTA에서 자국의 민감 농산물인 유제품, 땅콩, 설탕, 가금육 등에 공산품과 달리 특별 취급하여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FTA 협정체결시 초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FTA 관세철폐의 예외 혹은 유예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안 체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EU-멕시코의 FTA 협상에서와 같이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향후 결정될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일정 등과 조화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FTA를 추진하고, 관세철폐 및 감축 방식은 현행 관세 수준과 수입관리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여야만 WTO 다자간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소폭의 점진적인 농업개혁의 입장과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²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 급증 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는 조치임.

4.2. 관세 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 기간 및 감축방식 설정

FTA 협정에 의한 시장개방의 폭은 다자 체제에 의한 시장개방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다.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개방 폭이 적은 WTO 농업협상의 타결에 따른 예상 피해만도 우리 농업이 감당해 내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농업 부문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농업 부문의 반발과 FTA 수용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 기간 및 감축방식 설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품목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세 인하기간 설정하되 민감 품목의 경우는 일정 기간 이행한 후 FTA 효과를 검토하고, 그 후 다시 이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긴급수입 제한조치의 설정이 필요하다. 관세율 쿼터 제도하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수입국 해당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인상 외에도 일시적인 수입 수량 제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캐나다, 또는 캐나다-멕시코처럼 향후 활용이 예상되는 GATT(1994) XI : 2(C)항(농수산물에 대한 수량제한의 인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3. 피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소득보상을 위한 선대책 마련

우리의 영세하고 열악한 농업 여건에서

농산물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러한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육성을 통해 FTA 협상 추진이나 그로부터 도출될 협상 결과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특정국과의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쉽고, 나아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목표 즉, 상대 국가의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데 협상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한·칠레 FTA 체결 과정에서 합의도출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되돌아본다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농업 분야는 정부의 FTA 등 대외 개방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한 것은 아니며, “선 대책 마련, 후 체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칠레와의 FTA 추진 과정에서 상당 기간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농업 부문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대책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왔으며, 그동안 제시했던 FTA 체결 이후 대책들도 실제 우리 농업 및 농촌 부문이 피부로 느끼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에 농업 부문의 강한 반발과 함께 사후적으로도 예상보다 과도한 폐원신청 등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FTA 협상으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구조개선 대책은 협상 추진 이전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의해 농업 부문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다수 농산물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는 수입개방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형평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농가소득 보상조치 마련은 필요하다.

4.4. 농산물 수출 기회의 사전적 확대 노력

어느 국가와의 FTA 체결은 우리에게만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게도 시장개방과 무역 제한의 철폐를 요구한다. 즉 다른 국가의 농산물 시장개방과 무역 제한의 완화는 국산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위한 여건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산 농산물 수출 여건 개선이 실질적으로 수출 확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국산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시장 개척 및 유통 품목 발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한일 FTA 체결은 우리 농업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일반적이 예상된다. 물론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업 부문이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한일 FTA 체결을 통한 우리 농업 부문의 긍정적 효과는 모든 부문에서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양국 간 농업구조, 현행 농산물 무역장벽의 수준과

향후 대응력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한일 간 FTA 체결로 한국 농업이 실질적인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협상노력과 사전 준비태세의 확립이 요구된다. 우선 양국 간 FTA 협상은 농림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상이 되도록 하되, 만일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유예나 협정예외가 불가피하다면 우리의 대일 무역수지 불균형이나 다른 산업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대일 농산물 수출 증대의 제약요인 및 일본 내 농산물 유통장벽을 포함한 비관세장벽의 조사 등 심층적인 연구와 준비작업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대일 농산물 수출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한일 FTA로 일본 농산물의 수입 증가 등 국내 농업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4.5. 북한과의 반출입과 농업협력에 대한 내국간 거래 명문화

현재 남북한 양국은 남북 기본합의서, WTO 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남북간의 거래는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 교류로서 상호 합의하에 내국간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지금까지 남북 거래는 독일의 통일 전과 마찬가지로 자결권에 근거한 민족 내부거래로 암묵적으로 인정받아 공식적인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 물론 1990년도

초 미국 쌀 협회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쌀 원조가 수출보조라는 주장을 미 행정부에 제기한 바 있으나 미미한 무역량과 어려운 식량 사정하에 있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성격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 하지만 향후 남북한 무관세 내부거래가 확대되고 교역 물량이 증가하여, 이로 인해 자국의 이해가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국가가 출현한다면 무역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반출입에 대한 내국간 거래 및 향후 개성공단 등 북한과의 합작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생산 제품의 원산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 명문적으로 우리의 입장관철이 필요하다. 참고로 2004년 11월 29일 정부 간 타결된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국내산 물품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4.6. 농업·농촌 유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노력

한·칠레 FTA 진행 과정에서 국내 일부 비농업전문가나 단체, 그리고 비농업언론 등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 부문이 주장하는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대응조치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가령 “소탐대실론”, “농업 부문의 발목잡기”, “언제까지 농업을 보호만 할 것인가?”라는 주장 등은 매우 우려스런 국론 분열 현상이었다. 국내 농업

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2000년 중국산 마늘수입급증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합법적으로 발동한 산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 중단 조치로 야기된 한·중 마늘분쟁, 국내 농업 부문의 반발로 협상 타결이 지연되었던 한·칠레 FTA 진행 과정 등에서 빈번히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들은 일관된 협상 의지 표명을 통한 통상이익 확보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업생산활동이 국민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고유의 기능이외에 부수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비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왜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많은 선진국들과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마저도 자국의 농업보호와 활력 있는 농촌경제 유지를 위해 오랜 동안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농업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에서 우리 농업부문도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 형태나 농업정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도 많은 국민은 UR 협상 전후 추진된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대책, 투융자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농업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 부

문과 비농업 부문간의 생산성격차와 그에 따른 소득격차에서 비롯되며, 농업의 구조조정은 결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랜 동안 농업의 구조조정을 진행시켜 온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의 구조조정은 그 밖의 산업에 비해 긴 시간이 걸렸으며, 당초 목표가 기대한 만큼 쉽게 달성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우선 토지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 생산요소의 높은 고정성으로 인해 경제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구조조정이 경제이론과 달리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산업적 특성이외에도 농업 생산 활동의 주체인 농민의 대부분이 비숙련노동자들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제한적인 인구적 특성과 농촌이라는 지역 분산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은 원천적으로 다른 산업이나 부문에 비해 빠른 구조조정이 용이치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여 경제발전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6-7배 빠르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구조조정이 이미 이루어진 선진국들과 달리 구조조정 초기 단계에서 WTO 체제를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충격으로 농업 구조조정이 더욱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화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과 농정에 대한 방치나 비판보다 농업 및 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구조조정에 요구되

는 투자자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과 효과적 사용방법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4.7. 이해조정 기능 강화

FTA를 통한 시장개방의 확대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나 부문별로 보면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비농업 부문은 일반적으로 FTA 협상 타결 이후 보다 확대된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국내 농업 생산여건상 부족한 농업 자원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원천적으로 떨어지는 농업 부문은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 농업계는 “선 대책, 후 체결”을 외치며 정부의 FTA 추진 방향에 대한 의구심 제기뿐 만아니라 FTA에 대비해 마련한 농업정책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에 비농업계는 우리의 대외의존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FTA 등 무역자유화 움직임에 능동적 참여를 통한 국가발전 전략 추진에 농업 부문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등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농업계와 비농업계간의 합리적 이해조정을 위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조정의 새로운 틀은 농업 생산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농업과 농촌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을 통해

농업과 농촌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은 물론 농업과 농촌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4.8. 농업계의 경쟁력 강화 노력

21세기 세계 경제는 WTO 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FTA라는 형태의 세계적 경제 통합 현상 속에서 긴밀하게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는 농업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 부문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 부존자원 등 농업 생산여건의 어려움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WTO 협상 추진과 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 움직임은 우리 농업 부문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의 물결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온 농정 방향과 정책수단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추세가 한국 농업에 미칠 효과를 점검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대내외적인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정 전략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가능한 한 농산물 수출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급격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협상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제 규범 및 무역의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육성을 통해 세계화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농업 부문과 농업 생산자도 창의적이고 자조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에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력, 그리고 유통 효율성 및 품질 경쟁력 증대 방안 모색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확대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농업 생산자들은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장개방의 부정적 영향만을 염두에 두고 수세적 입장에서 실망만 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산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고 수출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농림부. 2004. 10.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교역동향.” 국제농업국. 내부 자료.
- 농림부. 2004. 『농림업 주요 통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4.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www.fta-fund.co.kr.
- 농협조사연구소. 2004. 『한·칠레 FTA 주요 내용과 대책』.
- 박기용. 20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CEO FOCUS. 73호. 농협중앙회.
- 어명근 등. 1999. 1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 임정빈. 20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

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 효과와
대응 방향.” 『국제지역연구』 6(1).

외교통상부. 2004. 9.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단기 효과 분석.”

최세균. 2004. “우리나라 FTA 정책과 농업문
제.”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자료.

■ 원고 접수일 : 2004년 11월 24일
원고 심사일 : 2004년 12월 3일
심사 완료일 : 2004년 12월 16일